

#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법제화

최근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근 지역까지 피해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, 화재 재해 예방을 위한 화재감시자 지정·배치를 법제화



## 화재 발생 사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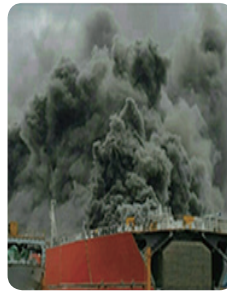
서울시 상암동 오피스텔 화재  
(\*17.03, 근로자 약 350명 대피)



부산시 중학교 증축 공사중 화재  
(\*17.02, 사망1)



화성시 주상복합 건물 내 공사중 화재  
(\*17.02, 사망2, 부상8)



거제시 LPG운반선 건조중 화재  
(\*15.08, 사망2, 부상7)



서울시 종로 미술관 신축공사 화재  
(\*12.8 사망4, 부상9)



인천시 물류 냉동창고 신축공사 화재  
(\*08.1, 사망40, 부상10)



## 화재감시자의 지정 및 배치장소

- 연면적 15,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
- 연면적 5,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·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
-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

**※ 미지정·미배치: 5년이하의 징역이나 5,000만원 이하의 벌금**



# 화재 감시자 지정 배치 법제화



## 화재감시자의 업무

- 화재감시자는 『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,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』만 하여야 함
  -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추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여 초기에 화재 진화능력 구비
  - 화재발생시 근로자 대피를 위한 비상구 확보
  - 인근의 소화설비 위치 확인
  - 비상경보설비를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 유지 및 점검
  - 용접 · 용단작업 등 화기취급 작업 후에도 30분 이상 계속하여 화재가능성 및 발생 여부를 확인



## 사업주의 의무

-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,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 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함



## 용접 · 용단작업 등 화기작업시 화재방지대책

- 인화성 물질 또는 가스 잔류 배관 · 용기 등 화재 · 폭발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용접 · 용단 작업 등 화기 작업시 화재발생방지 조치
  - 착화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및 인화성 가스 체류 배관 · 용기, 우레탄폼 단열재 등의 인근에서 용접 · 용단작업과 같은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감시인 지정 · 배치
  - 용기 및 배관에 인화성 가스, 액체 체류 또는 누출 여부 상시 점검 후 위험요인 제거
  - 전기케이블은 절연조치하고 피복 손상부는 교체, 단자부 이완 등에 의해 발열되지 않도록 조임
  -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전원 인출
  - 가스용기의 압력조정기와 호스 등의 접속부에서 가스누출 여부를 항상 점검